

‘노 마스크’ 480명 건배... 육군 3사 ‘방역지침 위반’ 눈살

육대전, ‘삼겹살 파티’ 제보받아
참석자들, 백신 1차 접종한 4학년

육군 “삼겹살데이 이용 식사자리에
참모진이 생도 격려차 행사 준비”



지난달 26일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식당에서 맥주1켤과 삼겹살이 배식된 식사자리에 생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건배를 하고 있다. /육대전 페이스북 캡처

코로나19로 인한 외출통제로 지친 육군 제3사관학교(이하 3사) 생도들을 위로하려고 실시한 단결활동이 3사 참모진들의 미흡한 행사 진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육대전)는 제보 받은 내용을 통해 지난달 26일 3사 4학년 생도들을 위해 진행된 ‘삼겹살과 맥주 파티’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단결활동? 단순식사? 개인방역은 어느 관점에서든 미흡

이날 육대전이 올린 사진에는 생도들이 칸막이 없는 식탁 주변에서 서서 건배를 하며 식사를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육대전에 따르면 이들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4학년 생도(약 480여명)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안내’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해당 지침에 따라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와 1차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 등에게 체육 및 종교 활동의 완화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완화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실외 체육활동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의 마

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육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육군의 입장발표에 앞서 3사도 육대전에 부대 단결활동이 아닌 ‘삼겹살 데이’를 이용한 식사 자리였다

는 입장을 전했다. 육군 관계자들은 1100석 규모의 생도식당을 학년별로 구분해 500명 단위로 식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비난은 쉽게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지난 5월 13일 ‘육본 산하 연구소, 계통대서 음주회식 신중해야...’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을 당시 육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하에서 30명 내외에서 공적인 단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바 있기 때문이다.

3사측 입장처럼 삼겹살 데이를 이용한 단순 식사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칸막이 속에서 거리를 둔 식사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육군의 한 간부는 삼겹살 데이의 경우 부대별로 조리병이 구워서 배식하느냐, 수육 형태로 조리해 배식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식사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격려행사간 삼겹살을 굽기 위해 테이블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도와 기간병 상호존중 문화 금가서는 안돼

방역 문제 외에 3사에 재학 중인 생도와 복무 중인 기간병 간의 괴리감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신을

3사에 복무 중인 병이라고 밝힌 육대전 제보자는 “저희 부대에는 ‘삼겹살 데이’라고 정해진 날짜가 없다. 간부가 정하면 그날 하는 거고, 사정이 있다고 1주일도 안 남았을 때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일 병사들은 삼겹살이 아닌 다른 식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익명의 3사 출신 장교는 “생도대와 병식당의 메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일로 모교인 3사가 쌓아온 생도와 기간병 간의 상호존중의 분위기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보자의 제보에는 빠져있지만, 3사 생도들은 동기회비를 모아, 음식 준비를 해준 조리병들에게 햄버거 등을 선물했다고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 5월 1일 이후 출타 통제 및 외부접촉 제한, 지난 30일부터 시작되는 혹독한 하계군사훈련 등으로 생도들을 격려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면서 “3사 참모진들이 생도 격려 행사를 준비하면서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생도들에게 불똥이 튈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72% ↑ ‘역대 2위’

신고기준으로 131억 달러 기록
도착기준 57% 오른 78.4억 달러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도 기대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한 131억4000만달러, 도착기준은 57.3% 오른 7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최고실적을 달성한 2018년(신고 157억5000만달러, 도착 102억8000만달러)에 이어 신고·도착기준 모두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특히 법정부적 정책 과제인 K-뉴딜 관련 외국인투자는 +163.4%를 기록했고, 신산업(+37.8%), 소부장(+14.7%) 분야가 대폭 증가해 외부와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공급망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저탄소 사회를 위한 그린 뉴딜 투자도 증가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분야는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다.

또 첨단제조(친환경차, 배터리), 플랫폼(배달앱, 공유경제), K-콘텐츠(영상, 웹툰, 게임) 등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신산업 중 제조업에서는 주로 전기·수소차 부품, 이차전지 소재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도·소매(유통), 게임·영상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됐다.

외투 유형별로는 1분기엔 21억달러에 달하는 독일 기업의 배달의민족 M&A를 중심으로 회복됐다면, 2분기엔 그린필드 외투도 59억달러로 반등한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아직

M&A형이 실적을 주도하나, 그린필드형도 큰 폭 상승해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다.

분야별로는 플랫폼 사업 등 서비스 분야(103억7000만달러, +95%) 외투가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분야도 소부장·자동차 외투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2분기가 3배 이상 증가해 감소폭(1분기 -28% → 상반기 -11.7%)이 완화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외투는 10~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실적은 이에 비해 매우 양호하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국 외투실적을 보면 한국은 +44.7%로 미국(+176.3%) 다음으로 가장 높다.

정부는 K-뉴딜, 신산업, 소부장 등 주요 경제정책과 연계해 외국인투자·기술이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과 원부자재에 대한 유치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곳 적발

농관원, 상반기 14.3% 늘어

코로나19 확산 속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 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적발 업체는 증가해 원산지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8만1710개소를 조사해 1507건을 적발(적발비율 1.

84%)한 반면, 올해는 6만7052개소를 조사해 1771건을 적발(2.64%)했다. 특히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335개소)은 전년(293개소)보다 14.3%나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많았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 개시

케이아이피 등 2곳서 조사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핀셋(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의료용 필터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6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인 ‘썬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두 곳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

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썬)누베파마는 한 국내기업이 자신

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터(조식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의 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연료운반선 연료 LNG 전환

발전공기업 첫 친환경선박 도입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연료운반선 중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친환경선박인 LNG추진 연료운반선을 도입하는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연료운반선 15척 중 18만톤급 벌크선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LNG 추진선박 2척(선사 H-Line해운)은 2023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이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축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를 통해 “올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4% 증가한 1088만CGT를 기록했다”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해 수주금액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LNG-LPG 등 친환경연료 추진선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주량의 약 70%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